

조선 후기 이상적 여성관의 변화

: 조선 후기 천주교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 효 진*

目 次

- I. 서론
- II. 유교 사회에서의 이상적 여성관
- III. 새로운 이상적 여성관의 등장
 - 1. 여성의 주체적 활동
 - 2. 동정생활
 - 3. 이순이의 옥중편지
- IV. 결론

I. 서론

조선은 성리학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건국된 유교 국가였다. 이를 기반으로 조선시대 여성에게는 열(烈)이라는 덕목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모범이 되는 여성을 열녀(烈女)라고 칭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순종과 수절이라는 유교적 여성관을 장려하기 위해 열녀전을 간행·유포하였으며, 열녀들을 포상하는 징표정책(旌表政策)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열녀들의 열행은 다양하였으며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 하였다. 가령, 절의를 지키기 위해 개가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여생을 보내거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극단적인 경우 남편을 따라서 스스로 자결하는 순절을 행하기도 하였고, 병든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호가 바뀌면서 장려되는 여성관이 변화했듯이, 조선 후기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여성관이 변화하였다. 천주교는 조선 후기 양반 지식인들에 의해 학문으로 탐구되었으나, 점차 신앙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서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이 모친의 신주를 불태워 유교식 제사를 거부한 진산사건으로 인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많은 양반신자들이 배교한 반면 중인층과 여성을 비롯한 소외 계층이 신앙공동체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조선 후기 천주교회에서도 남녀신자들에게 장려되는 덕목들이 있었다. 특히 동정을 이상적인 가치로 받아들였으며 여성의 경우 동정서원(童貞誓願)을 한 신자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조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중심에는 남성이 자리해 있었으며, 사대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유교적 여성관 역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남성들이 가부장적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만들어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여성이라는 존재는 부부와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다. 그러나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초기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남성 신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신앙활동에 참여하였다. 초기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강완숙 골롬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여성임에도 회장직을 맡아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동정생활은 부부와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으로부터의 종속적 삶을 재고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¹⁾ 이는 1801년에 순교한 이순이 루갈다가 남긴 옥중편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여성들의 자기이해 방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조선 후기 이상적 여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자기이해 방

1)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20 (2003): 49, 52.

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조선 후기 천주교 내부의 모든 여성들에게 동정생활이 강요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정생활을 실천했던 이들이 여성 신자의 주류를 차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에서 동정을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여겼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여성관에 대한 연구는 유교와 천주교라는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다. 이혜순은 조선의 열녀전들을 통해 열녀의 개념의 형성과 전개, 특성 및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²⁾ 그녀의 연구는 열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열녀전에 투영된 사대부의 의식과 그 의의를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열녀전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김옥희는 조선 후기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³⁾ 여러 차례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소실되어 1차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옥희의 연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숙은 천주교가 수용됨으로써 변화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여성관과 그 한계를 지적한다.⁴⁾ 그러나 많은 변화들을 다루다 보니 제한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라는 두 차원에서 진행된 여성관에 대한 연구로는 김정경⁵⁾과 이대근의 성과를 들 수 있다. 김정경은 조선 후기 천주교 여성 순교자의 전기와 열녀전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의 주체화 양상이 이전과 차별된다고 지적하고, 여성 순교자들이 순교를 통해 성인이 됨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⁶⁾ 이대근은 조선조 유교사회에서 발견되는 선비정신과 천주교에서 순교정

2)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30 (1999): 95-152.

3) 김옥희, 『한국천주교여성사 I·II』 (마산: 한국인문과학원, 1983).

4)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35-79.

5) 김정경은 조선 후기 여성을 유교와 천주교라는 두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 외에도 개별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김정경, 「조선 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 『국제어문』 53 (2011): 9-35;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131-156.)

6)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의 주체화 방식과 생애 기술 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

신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찰한다.⁷⁾ 그러나 유교적 여성관과 천주교적 여성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증을 전개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유교 사회에서의 이상적 여성관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유교적 여성관에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정절과 열행을 강조한 반면, 천주교에서는 남성 대신 그 자리에 천주를 위치시킴으로써 여성의 행위와 존재론적 기반에 변화를 가했다. 본 연구는 유교적 맥락에서의 이상적 여성관에서 천주교에서의 이상적 여성관으로의 전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흐름을 읽어내고자 한다. 특히 유교적 여성관과의 비교를 통해 천주교 여성관의 차별성과 특질을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한다.

II. 유교 사회에서의 이상적 여성관

조선시대 모범이 되는 여성의 삶은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여성관에 따르는 것이었다. 조선조 유교 사회에서는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한 정표정책을 실시하였고, 유교적 여성관을 정립하기 위해 열녀전을 편집하여 보급하였다. 열녀전은 중국 전한시기에 유행이 편찬한 책이었으며 조선에서도 편찬되었다. 조선의 경우 사서에 열녀전이 수록된 것은 조선 세종에 의해 편찬되어 문종 때 완성된 『고려사(高麗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조에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도 열녀도가 포함되어 있다.⁸⁾ 이를 통해 조선의 지배계층은 여성들에게 열녀라는 유교의 표준적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절의를 보여야 열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거나 모범적인 행위들을 통해 열녀

고전여성문학연구』 29 (2014): 33-62.

7) 이대근, 「초기 조선 천주교회에서의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만남」, 『신학전망』 193 (2016): 156-196.

8)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97.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전란의 발생으로 인해 열녀의 수가 증가하고, 17세기 이후에는 여성의 순절(殉節)이 늘어나면서 순절이 자신의 절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⁹⁾ 열녀전에 수록된 여성들의 열행으로는 수절(守節)과 순절, 남편을 죽게 만든 자에 대한 복수와 남편에 대한 헌신, 신체 훼손 등이 주목되었다.

먼저 수절은 남편이 죽은 후에 살아 남아 개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 이전에는 남편의 묘에서 여막살이를 하거나 그의 신주를 정성껏 모시며 근신하며 사는 여성의 수절이 열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종사(從死)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수절은 열녀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¹⁰⁾ 순절은 남편 사후 아내가 그를 따라서 죽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세속적 삶의 완전한 포기로 이해될 수 있다. 양반 이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은 다수의 여성들이 열녀로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열녀의 열행들 중 순절이 여성들에게 각인되면서 죽은 남편을 위해 순절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숙종실록(肅宗實錄)』에 기록된 열녀 기사 대부분이 여성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다. 영조와 정조 때에는 전체 열녀의 70%가 순절을 통해 정표를 받았는데 이는 순절이 열녀가 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¹¹⁾ 복수는 무고하게 살해된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을 뜻하며, 헌신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부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신체 훼손은 19세기 이후 자주 등장하는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 남편을 구명하는 행위를 말한다.¹²⁾

이처럼 열행의 유형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 모든 열행의 기반에는 결과적으로 남편, 즉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전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편이 죽은 후에는 개가하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 목숨

9)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103-104.

10)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110.

11) 강명관, 『열녀의 탄생』 (과주: 돌베개, 2009), 479-483.

12)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113-115.

을 끊거나 자신의 신체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남성을 위한 절의를 보이는 행위가 교육을 통해 장려되었다. 즉 여성들의 가치와 덕목은 결국 남성을 대하는 행실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교적 여성관은 여성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순절한 여성들이 남긴 유서를 살펴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들의 삶도 이미 끝나버렸다고 상정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회적 질서 내에서 여성의 존재를 입증해 주던 남성의 사망은 곧 여성의 사회적 자리의 상실과도 같았다. 조선시대에 순절한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론적 의미를 남편(남성)에게 한정시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조선시대 권력계층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결국 남성에게 절의를 지키는 제한적인 존재였고, 이러한 존재의식은 열녀라는 이미지로 강요되면서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었다.

열녀전 외에도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훈서(女訓書)를 통해 유교적 여성상이 내면화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여훈서는 여성을 위한 가르침을 담은 것으로 국가와 사대부 양반들에 의해 편찬되었고, 일부 왕실 여성이나 사대부 여성들에 의해서도 편찬되었다. 여성들이 작성한 여훈서에 실린 여성에 대한 규범들은 사대부 남성이 작성한 여훈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여성들도 유교적 여성관을 내면화했음을 보여준다.¹⁴⁾

조선 초기에 규범화된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열행의 모습이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되었으며, 그 기반에는 남성에 대한 훨씬 강화된 헌신이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천주교가 전래되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여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상적인 여성관을 그려가기 시작하였다.

13) 김정경, 「조선 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 20-22.

14) 김언순,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페미니즘연구』 8 (2008): 3, 15.

Ⅲ. 새로운 이상적 여성관의 등장

조선의 여성들에게 이상적으로 제시되었던 생활모습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조선 후기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여성관이 등장하게 된다. 유교적 질서에서 여성의 존재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틀에 제한되어 있었다. 여성이 독신생활을 하거나 동정을 지키는 일은 과부의 수절이나 출가를 제외하고는 장려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결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천주교 전래 이후 결혼을 하지 않고 동정생활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해 수절과 순절을 준수했다면 이제는 남성이 아닌 천주, 즉 신을 위해 동정을 지키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이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남성 신자들 못지않게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유교적 여성관으로부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성의 자기이해 방식이다. 이전까지 여성의 자기이해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혼인 이전의 여성은 가족이라는 틀에서 존재를 인식했으며, 혼인 이후에는 부부라는 틀에 종속되어 있었다. 조선이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남성을 통해서만 여성의 존재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천주교에 입교하면서 여성은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다. 유교적 질서에서는 충, 효, 열을 통해 개인의 존재의식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했다면, 천주교가 도입되면서 ‘천주(天主)’라는 신이 중심에 설정되었고, 새로운 신적 존재가 기존 질서 위에 균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 줄 만한 천주교 신자들의 기록들은 연이은 국가적 차원의 박해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천주교의 실상을 기록한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韓國天主敎會史)』와 이순이 루갈다가 옥중에서 작성한 옥중편지가 전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통해 초기천주교회 공동체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여성의 주체적 활동

천주교가 전래되었던 초기에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신자층이 형성되었으나 1791년 진산사건 당시 연루되어 있던 양반들이 박해를 당하자 제사 문제로 인해 많은 수의 양반계층 신자들이 배교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천주교에 입도하는 중인계층 및 여성 신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여성 신자들은 남성 신자들 못지않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조선 초기교회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완숙 골롬바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강완숙 골롬바의 활동에 주목하여 여성의 주체적 활동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강완숙은 1760년 충청도 지방에서 양반가의 서얼로 태어났다. 그녀는 친척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는데, 1794년 조선에 입국한 중국인 신부였던 주문모를 혼신을 다해 보필했으며 주문모 신부는 그녀를 회장직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강완숙의 신앙활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주문모 신부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강완숙 골롬바의 매우 효과적인 협력을 얻었다. 집안에서는 골롬바가 신부의 시중을 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였으며, 밖으로는 모든 중요한 일에 관여하였는데, 하느님께서 그의 하는 일을 축복하시어 언제나 성공하게 하여 주셨다. 골롬바는 견실한 지식에 크나큰 맡재주를 겸하였으므로 여자들을 많이 입교시켰는데, 그 중에는 높은 양반집 부인들도 상당히 있었다… 골롬바는 처녀들도 많이 모아서 단단히 교육을 시켰다… 모든 교우들이 그를 사랑하고 우러러 보았다. 교우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골롬바는 힘차고 슬기롭게 모든 일을 권고하고, 이를테면 모든 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비록 남자들 중에 열심히 한 교우가 많았으나 모두가 기꺼이 그의 교화를 받고, 땅지로 종을 치면 소리가 따르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는 불이 짙에 불 듯 열심히 그의 수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천주교가 이룩한 진전의 대부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발전은 매우 큰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주문모 신부가 오기 전에는 조선의 천주교인이 약 4천 명이었는데, 몇해 후에는 그 숫자가 1만 명에 이르렀다.¹⁵⁾

달레의 기록에 의하면 강완숙은 여성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모 신부 및 다수의 교인들이 그녀를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완숙의 활동들 중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녀가 여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조직하여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강완숙은 여성 신자들을 교육시킨 최초의 지도자로서, 수도회 성격의 단체를 처음으로 조직했다.¹⁵⁾ 뿐만 아니라 양반 집안의 여성들을 많이 입교시켰으며 그녀의 활동으로 인해 교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주문모 신부가 포졸들에게 잡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어 그가 붙잡히는 것을 막는 큰 공로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녀의 활동들은 시대적으로 여성이 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이러한 강완숙의 모습은 남편과 가족에게 헌신하고 집안 내부의 일에만 관여하는 전형적인 유교적 이상향에 부합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와 신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문모 신부로부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의해 회장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강완숙의 적극적인 활동은 천주교에 입교함으로써 자신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고 성별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선교활동에 임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강완숙은 유교적 여성관에서 벗어나 천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천주교 여성 신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정생활

한국천주교여성사에서 눈에 띄는 여성 신자들의 활동은 바로 동정생활이라고

15) 달레(Ch. Dallet), 『한국천주교회사 上』, 안응렬·최석우 역주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392-393.

16) 김옥희, 「강완숙 - 시대의 한계 극복하고 가톨릭 포교에 몸바친 여성 혁명가」, 『광장』 160 (1986): 215.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판토하(Pantoja)의 『칠극(七克)』과 성인전기와 같은 여러 천주교 서적을 접하면서 동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숭고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칠극』에서는 정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 가장 으뜸인 것이 독신 남녀의 동정이었다.¹⁷⁾ 동정녀들의 수정관(守貞觀)은 고대 로마 가톨릭 여성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욕주의적 사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생활형태였다.¹⁸⁾ 동정생활은 금욕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열녀의 수절과 유사한 지점이 있지만 ‘누구를 위한 성적 절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유교적 여성관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이들은 부부라는 틀에서 벗어나 남성이 아닌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동정생활을 선택한 것이었다.

1801년 신유교난(辛酉敎難) 때 박해자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사학정의(邪學懲義)』를 통해, 당시 여성 신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정생활을 실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천주교회의 초기 여성사에서 나타나는 동정녀들은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거나 개인적으로 동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을 바쳤다. 심지어 동정녀 생활을 하기 위해 혼기가 찬 규수들이 집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은 것처럼 가장해 놓고 가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동정생활을 지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또한 뒤에서 살펴볼 이순이·유중철 부부처럼 혼인을 했지만 실상은 동정을 지키며 생활했던 동정부부들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실제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혼인한 것처럼 꾸미고 과부행세를 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유박해(辛酉迫害)와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순교한 동정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동정녀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점혜 아가타를 예로 들 수 있다. 윤점혜는 경기도의 양반집 서녀로 태어났으며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기를 결심하고 동정서원(童貞誓願)을 한 인물이다.

17) 김윤성, 「조선후기 천주교 여성들의 금욕적 실천」, 『여성학논집』 24 (2007): 250.

18) 김옥희, 『한국천주교여성사 I』, 114.

19) 김옥희, 『한국천주교여성사 I』, 115.

그녀는 강완숙과 함께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매우 엄격한 생활과 잦은 금식과 극기를 행했는데, 혼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과부라고 지칭하며 동정생활을 영위했다고 고발되어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윤점혜 외에도 동정을 지키던 여성들이 신유박해 때 순교했는데, 정순매 바르바라는 동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허가(許哥)라는 사람과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머리를 올려 혼자 지내다가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²⁰⁾

이처럼 신유박해 당시 여성들은 혼인하지 않고 동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갖가지 구실을 동원했다. 여성에게 결혼이 강제되던 시기였지만, 동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과부라고 칭하거나 가상의 인물과 결혼한 적 있는 과부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유교적 가치관을 붕괴시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적어도 여성의 존재를 결혼과 가족이라는 틀에 한정시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속의 남성이 아닌 초월적인 신과 신앙을 우선시하면서 동정을 지키는 모습은 기존의 유교적 여성관과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동정자매인 김효임 골롬바와 김효주 아네스가 있다. 두 자매가 붙잡혔을 당시 그녀들의 나이가 26세, 24세 였는데 포장(捕將)이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천주교인들에게는 동정이 더 완전한 것으로, 천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동정을 지키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동정 순교자가 동정의 목적에 대해 공공연하게 답변한 것은 그들의 증언이 처음이었다.²¹⁾ 또한 기해박해 당시 순교한 여성들 중 3분의 1이 동정녀공동체 혹은 동정녀가 포함된 여성공동체 출신이었으며, 동정녀들이 함께 모여 생활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²²⁾ 이는 신유박해 이후 여성 신자들에게 동정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동정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순교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정을 지키기 위한 동정녀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은

20) 달레(Ch. Dallet), 『한국천주교회사 上』, 509-512.

21) 달레(Ch. Dallet), 『한국천주교회사 中』, 409-410.

22) 가톨릭출판사편집부, 『기해일기』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4), 9-10.

결혼을 통해 유교사회의 근간을 지키려던 제도와 통념에 대한 거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정이라는 금욕적 실천을 신앙적 차원에서 몸소 실천하였지만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행되자 천주교인들은 죽음과 배교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신자들의 모습이 발견된다. ‘순교’라는 신과 신앙을 위한 죽음에 임하는 여성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순이 루갈다가 남긴 옥중편지를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3. 이순이의 옥중편지

이순이 루갈다는 1779-1782년²³⁾ 사이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동정생활을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1797년 그녀와 뜻을 같이하는 유중철 요한과 혼인하여 동정부부로 생활하다가 1801년 신유교난 때 같이 순교하였다.²⁴⁾ 1801년 신유박해로 옥중에 갇혀있을 때 이순이는 자신의 어머니와 친정의 언니와 올케언니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의 옥중편지이다. 옥중편지는 총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언니에게 보낸 것이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후자에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과 함께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두 언니에게 보낸 편지²⁵⁾에서 이순이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천주교의 이상적

23) 이순이 루갈다의 출생 연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승희는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과 여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일고찰(2013)」에서 이순이의 출생 연도를 1782년으로 보고 있지만, 정병설은 『죽음을 넘어서』에서 천주교도들을 심문한 『사학징의』나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 성인의 전기를 기술한 『성년광역』에 기록된 이순의 출생 연도가 모두 다르다고 지적한다.

24) 이승희,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과 여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134.

25) 이순이 루갈다가 남긴 옥중편지의 원문은 한글본으로 전해지는데, 본고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한글로 번역된 정병설의 『죽음을 넘어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여성관을 실천하고자 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남편인 유중철을 대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순교, 천주를 위한 죽음

저는 죄악이 너무도 무거워, 세상의 온갖 어지러운 일을 다 당하니, 지필로 말을 만들어 아될 수가 없을 정도예요...금년이 되어 계속 간장을 녹이다가 마침내 사세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 시아버님을 여의게 되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기회가 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마음먹었지요. 여러 가지 큰일을 처리하면서 세상 정리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포졸들이 들이닥쳐 내 몸을 잡혔어요. 제 뜻한 바 기뻐했지요. 주님께 감사했으며 마음은 기뻐어요.²⁶⁾

위의 기록을 통해 이순이는 초기교회 설립의 핵심 인물이었던 시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자 자신도 순교하고자 다짐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천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자 한 것이다. 심지어 포졸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왔을 때 자신의 마음은 두려움 혹은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증언한다. 당시 유교적 질서 내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죽음은 죄악시되는 불효행위 중 하나였으며 죽은 남편을 위해 절의를 지키기 위한 순절만이 장려될 뿐이었다. 하지만 천주교인들에게 순교는 ‘의인(義人)’과 ‘천국성인(天國聖人)’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천주의 총애를 입는 영광의 길로 이해되었다.²⁷⁾ 따라서 그녀는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순이의 순교는 세속적 삶에 대한 지향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열녀의 순절과 유사하지만 두 행위가 함의하고 있는 바는 전혀 다르다. 동정생활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남성이 아닌 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순교와 순절 모두 목숨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같은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행위에 담겨진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

26) 정병철, 『죽음을 넘어서-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서울: 민음사, 2014), 113-114.

27) 김옥희, 『한국천주교여성사 I』, 249.

존 질서와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옥중편지에서 이순이가 자신이 지은 죄가 많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주목된다. 이러한 그녀의 자기 고백과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그녀가 천주교 교리를 체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실질적인 대상은 천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내면을 가진 개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순교를 받아들이는 이순이의 태도는 신을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신이라는 독립적 존재를 통해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순이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신에게서 찾음으로써 유교적 가치체계에서 이탈하였고, 남성에게 한정되지 않는 자신만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기반 위에서 그녀는 신을 위한 죽음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옥중편지에서 순교를 받아들이는 이순이의 태도와, 간접적으로나마 그녀의 가족들이 순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① 누우나 앉으나 구하고 원하는바 순교하는 은혜라, 이런 소망이 가득하여 각각 말을 하되 마치 한입에서 나온 듯했어요. 시어머니 동서 형제 두 분과 시아주버지 형제와 모두 다섯 명이 약속하기를, “주님을 위해 죽자.” 했지요.²⁹⁾

② 다만 그옥이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바 한날 함께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었어요.³⁰⁾

①에서는 이순이가 순교를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신을 위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그녀의 가족들 역시 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②는 이순이가 남편인 유증철과 생전에 함께 순교할 것을 약속했던 것을

28)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148-149.

29)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114.

30)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115.

보여주는데, 이순이·유중철 부부는 모두 천주를 위해 순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이의 죽음은 존재의 기반과 의의를 남성이 아닌 신에게 둔 것이다. 그녀의 순교는 죽은 남편을 위한 열녀의 수절과는 대조되는, 신을 위한 죽음이었다.

(2) 남편과의 관계성

이순이의 신 중심적 자기이해 방식은 남편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의 여성들과는 다르게 남편을 대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적 질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남매가 되기로 언약을 하고 사 년을 지내더니, 요한은 올해 봄에 잡히어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이 바뀌도록 처음 입은 옷을 바꿔입지 못했어요.³¹⁾

여기 요한은 남들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저는 충직한 벗이라고하니 만일 천국으로 올라갔으면 저를 잊지 않겠지요...언제 감옥을 벗어나 대군대부와 천상모황과 사랑하던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충직한 벗 요한을 만나 즐길까³²⁾

요한은 유중철의 세례명인데, 이순이와 유중철은 혼인을 했지만 혼인 전 서로 동정생활을 서약한 동정부부였다. 이순이는 옥중편지에서 남편을 남매이자 벗이라고 칭하고 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관계설정을 통해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에 두고 있었으며, 유교적 여성관에 의하면 아내는 지아비를 잘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순이는 부부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허물고 남편을 남매이자 벗이라고 부름으로써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었다.

그녀가 부부간의 관계설정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천주교를 접하면서 남녀 모두 천주의 모상을 닮은 존재라는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31)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117-118.

32)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125.

천주교가 현대적인 의미의 남녀평등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으며 여성 신자들에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부부간의 상호 존중의 의무와 남녀가 대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³³⁾ 그러므로 이순이는 신을 중심으로 자기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남성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여성관이 설정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다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동정부부였기 때문에 이순이는 남편에게 성적으로도 종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여성들보다 용이하게 남편을 남매이자 벗이라고 칭할 수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천주교의 수용은 여성 신자들에게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에 대해 새로운 이상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남성에게 헌신하는 열녀의 모습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 신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IV. 결론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사대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유교적 여성관을 주입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천주교가 전래되자 천주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천주교의 전래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에게 찾아온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여성관과는 다른 모습의 여성관이 등장한 것이었다. 조선의 지배계급이 추구했던 여성상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열행을 다하는 열녀, 즉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으며 여성의 존재론적 기반에는 남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남성이 아닌 신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천주교의 영향으로 여성에게는 신을 중심으로 한 자기이해가 시도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33) 이승희,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과 여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일고찰」, 138-139.

인식하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신자들은 남성이 아닌 신을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 신을 위한 동정생활을 실천하고 신을 위한 순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열녀의 수절과 정절이 성적 욕망과 세속적 삶에 대한 지향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여성 신자들의 동정생활과 순교와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이상적 여성관을 대표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강완숙 골롬바의 활동, 윤점혜 아가타를 비롯한 동정생활을 했던 여성 신자들의 사례, 그리고 옥중편지에 담긴 이순이 루갈다의 고백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들이 유교적 여성관에 대한 적극적 대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모든 여성 신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의 여성들과는 달리 그들은 천주라는 존재를 통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이해했으며, 남성의 자리에 천주를 대입시켜 신을 위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본고는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새롭게 등장했음을 제시하고,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논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나타난 이상적 여성관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으며, 유교적 여성관과 천주교적 여성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에 남성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의 전환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만남에서 균열되고 변화하고 생성되는 여성관을 직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남녀평등을 실천한 근대적인 발상의 시초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거를 뛰어넘는 급진적인 주장일 수 있다. 그보다는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조선 후기 여성에게 신을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기반을 확인하고자 했던 신앙적 태도가 새로운 여성관의 활로를 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조선 후기 여성, 조선 후기 천주교, 여성관, 강완숙, 이순이, 천주교 여성 신자, 순교, 동정생활

투 고 일: 2021. 12. 02.

심사종료일: 2021. 12. 21.

게재확정일: 2021. 12. 28.

참고문헌

- 가톨릭출판사편집부. 『기해일기』.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4.
- 강명관. 『열녀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09.
- 김언순.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페미니즘연구』 8 (2008): 1-42.
- 김옥희. 『한국천주교여성사 I』. 마산: 한국인문과학원, 1983.
- _____. 「강완숙 - 시대의 한계 극복하고 가톨릭 포교에 몸바친 여성 혁명가」. 『광장』 160 (1986): 213-221.
- 김윤성. 「조선후기 천주교 여성들의 금욕적 실천」. 『여성학논집』 24 (2007): 233-265.
- 김정경. 「조선 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 『국제어문』 53 (2011): 9-35.
- _____.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131-156.
- _____.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의 주체화 방식과 생애 기술 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2014): 33-62.
-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20 (2003): 35-79.
- 이대근. 「초기 조선 천주교회에서의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만남」. 『신학전망』 193 (2016): 156-196.
- 이승희.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과 여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121-149.
-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30 (1999): 95-152.
-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서울: 민음사, 2014.
- Dallet, Charles.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Victor Palmé. 1874. 『韓國天主敎會史上·中』. 안응렬·최석우 역주.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Abstract

Changes in the Ideal View of the Wom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Catholicism

Lee, Hyojin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ideal image of the woman held by societ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tholicism. The virtue of Yeol (烈), which means the wife serving the husband well, was emphasized for women in Joseon and the women who set an example for this were called Yeolnyeo (烈女).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Catholicism in the 18th century, there was a change in attitude towards what the ideal image of the woman entails, including how women understood themselves. The ideal woman in Joseon was a wife who was passionately obedient to her husband. Men were ontologically essential for women.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Catholicism, women started to understand their existence centered on God rather than men. In other words,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women to perceive themselves as equal persons not subordinate to men. Therefore, female believers were now able to carry out independent activities not for men but for God, maintain their virginity and practice martyrdom, irrespective of their particular situations of family and marriage. The new ideal image of the woman could be seen through Kang Wan-sook Colomba's activities, female believers maintaining their virginity, and Lee Soon-i's prison letter. However, this paper does not intend to argue that these figures resisted the Confucian view of women or that they represented all female believers but to explain how the new religious faith,

particularly their faith in God, affected their behaviors and their notion of the ideal woman.

Kew Words: Women in late Joseon dynasty, Catholicism in late Joseon dynasty, The image of women, Kang Wan-Sook, Lee Soon-i, Female Catholic believers, Martyrdom, Virginity life